중국의 광저우 교역회 - 앞으로의 섬유 교환 무역 불투명

중국의 광저우(廣州)에서 매년 춘추로 두 번씩 열리고 있는 광저우 교역회에서 서로 거래되는 계약의 총액은 중국 내의 일반 무역 연간 거래액 가운데 1/3을 차지하고 있다. 그런데 이번 추계 개최 기간에, 보통이면 해외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기업은 이듬 해에 수입할 상품의 매매 계약이나 또는 1~2개월의 짧은 기간의 매매 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, 중국이나 미국의 섬유 기업에게 금년의 광저우 교역회는 예년과는 달랐다.

중국의 큰 섬유 제품 수출 기업인 회홍집단침직품진출구유한공사(匯鴻集團針織品進出口有限公司)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섬유 교섭의 앞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2005년에는 수출 판로 전략을 전혀 정할 수 없다고 한다. 이와 같이 거래가 결정되지 않으면 수출 업자들은 수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다.

중국의 메이커에게는 미국은 유럽과 함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의 하나이다. 중국방직품출구상회에 따르면 2005년 1~8월에 중국으로부터 미국 및 유럽으로의 섬유 제품 수출액은 251억 달러에 이르며, 수출 총액의 34%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.

이 진출구상회에 의하면 중국의 섬유 제품 메이커들은 섬유 교섭이 빨리 결정되기를 원하고 있다. 그들은 이미 무역 보호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불확정 요소 때문에 이듬 해의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을 지겹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.

미국으로부터 방문한 업계 관계자는 “원래 3일간 교역회를 찾아 볼 예정이었으나 하루 단축시켰다. 목적도 샘플을 수집하고 가격 시세를 조사하며 중국측 거래 파트너와의 인사 정도를 구상하였으며, 매매 계약을 맺을 계획은 없었다”라고 말하고 있다.♣